

효강 대종사 종령 재추대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화방편 마련



충지중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충지중(총리위원장 우승)은 1월 12일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일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들이

일치로 제10대 충지중 종령으로 재추대하였다.

효강 대종사는 2004년 5월 17일 충지중 제9대 종령으로 추대되었으나 열반하신 고 록정 대종사의 잔여 임기로 추대되어 이번에 재추대하게 되었다.

효강 대종사는 종령추대에 즈음하여 "충지중 창종조인 원정 대승님은 천년의 세월동안 잠자고 있던 정통 밀교를 개창하시고, 삼밀수행과 진

언염송의 오묘한 밀법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뿌려놓았던 씨앗을 거두는 수확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승단과 교도들은 원정 대승사

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제생의세의 정진으로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화 방편, 포교방법을 마련하여 무릇 모든 중생들이 밀강의 세계에서 해탈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제도는 청정한 수행풍토와 신명나는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충지중의 법안에서 정신적, 육체적 해탈을 이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하여 부처님의 세상을 열어갑시다."고 말했다.

효강 대종사는 대내적으로 총리위원장, 법장위원장, 교육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며 종단을 불교계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으며, 대외적으로 불교방송이사,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제10대 효강대종사 종령추대 법회는 오는 2월 17일 서울 충지사에서 종단 내부법회로 봉행될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 및 퇴임식 봉행 새로운 도약의 한 해 다짐과 포교 활성화

충지중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충지사에서 전국의 스승과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강 종령예하를 모시고 병술년 한 해를 맞이하는 신년 하례법회와 중생교화의 일선에서 물러난 최상관, 자신화, 수승원 스승을 위한 퇴임식을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는 원정기념관에서 원정 대승사님 하례, 효강 종령예하와 승단의 하례, 종령예하 신년법어, 총리위원장 신년사의 신년하례법회와 퇴임 스승을 위한 종령법어, 총리위원장 인사말, 퇴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충지중은 초창기 열화와 같은 교세를 부흥시키기 위해 승단은 청정하고 엄격한 계율로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여 법력을 길러야 하며, 종도들은 더욱더 용맹정진으로 가족제도, 이웃제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충지중의 부흥을 위해 시대변화에 걸맞은 교화방편의 개발, 도제양성, 의식과 의례의 개혁, 불단장업, 사회복지의 활성화, 포교방법의 개발 등을 마련하여 교회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불법에 제도되어 불국토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 우승 총리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늘 퇴임하시는 스승님들은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버리고 오로지 보살 대승들의 안위와 해탈을 위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맹세워 정진하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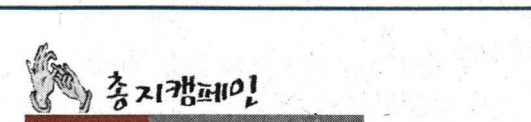


병술년 신년하례법회에서 교도들이 스승님들께 신년하례의 합장례를 올리고 있다.

며, 부처님의 자비한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충지중을 불교계 주요종단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비록 현직에서 퇴임하시더라도 넓은 해안과 경륜으로 후배들을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상관 지수는 퇴임사에서 "처음 스승의 관정수계를 받았을 때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선배 스승들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는 본인이 퇴임을 하게 되니 세월의 흐름이 참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살들이 열심히 용맹정진하여 행복하고 해탈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며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삶이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충지중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멸기원(佛滅紀元)

서기(西紀)는 서력기원(西曆紀元)의 준말로서 디오니시우스 예시우스라는 신학자가 525년에 로마 교황의 명으로 「부활제(復活祭)의 서(書)」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탄생기원을 채택, 예수의 탄생일을 로마건국기원 754년(이 해가 서력 원년에 해당된다)으로 했다. 이것이 664년 영국의 윌토비 종교회의에서 채택되었고, 9 세기가 되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오늘 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

불기(佛紀)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의 준말이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해를 기원(紀元)으로 하는 연기(年記)다. 석가모니의 열반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구시나라의 사라쌍수에서 80세에 입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 인도에서는 객관적 서술로 기록된 역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타의 입적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부터 1962년까지 1300 여 년 동안 북방불기(北方佛紀)를 사용했다. 북방불기는 기원전 949년을 석존입적의 원년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올해는 불기 2955년이다. 이는 1956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국제 불교도우의회(WFB)에서 남방불기(南方佛紀)를 근거로 결정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기(2006년 현재 불기2550년)와는 40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방불기는 마우리아왕조 아쇼카왕의 즉위연대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아쇼카왕의 즉위연대가 불타의 입적 후 218년이라는 주장과 불타의 입적 후 100년(또는 116년, 160년) 등의 주장이 있지만 그 즉위연대조차 정확한 인도의 기록이 아니라 그 무렵 인도를 침공했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왕의 연대에 의거해 간접 확인된 것이다. 마우리아왕조 아쇼카왕의 즉위연대는 기원전 268년이라고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불교도우의회(WFB)에서는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가 입적한 해를 기원전 543년으로 주장하는 학설을 인정하여 결정했다. 올해는 서기 2006년, 단기 4339년, 불기 2550년이다. 이중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력(曆)은 서기지만 우리들은 단기와 불기가 갖고 있는 의미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이 달의 종조법설

수도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체험하려면 가치실현을 위한 인격활동, 즉 실천수행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미망된 현실은 결코 신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 인(因)도 없고 연(緣)도 없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인간 자신이 지은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가 이에 책임을 지고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복과 기쁨의 나날이 되길" 병술년, 새해 대정진 불공

충지중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사원에서 병술년 한 해를 맞이하여 한 해의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새해 대정진 불공을 봉행하였다. 특히 1월 8일 자성일에는 저녁9시부터 새벽4시까지 7시간 철야용맹정진을 하였다.

새해 대정진불공은 충지중에서 가장 큰 불공으로 이 기간에는 충지중의 많은 교도들과 불자 및 일반시민들이 충지중의 사원을 방문하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일부 사원에서는 새해 대정진불공의 공덕을 살리기 위해 방생을 행하기도 하였으며, 주변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위문품을

을 전달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병술년 한 해를 맞이하는 새해 대정진불공은 지금까지 행했던 새해불공과 비교하여 많은 교도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충지중 사원은 새해 대정진 불공의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해 불공을 마친 스승과 교도들은 "병술년 새해 대정진불공은 모든 사람들이 환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하였기에 그 회향의 공덕도 클 것이며, 올 한 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지중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선 정통밀교 종단 충지중!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고 있는 충지중의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전국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충기35년(2006년) 2월 17일 오후 2시
- ◆ 장 소 : 불교충지중 총지사
- ◆ 대 상 : 전국 스승 및 교도
-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불교충지중 종령추대 봉행위원장 우 승



사 설

종단의 중흥과 개혁에의 의지

지난 1월 16일 승단 총회에서는 제10대 종령으로 현임 종령 이신 효강대중사를 재추대하였다. 2월17일 취임식과 더불어 향후 6년 동안 종단의 영수로서, 그리고 본 종단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법(嗣法)과 교법을 관장하며 본 종단을 이끌게 되실 것이다. 효강 대중사께서는 평소에도 종단의 중흥을 역설하시며 종단의 여러 면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신 분이기에 입기 동안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총지종은 올해로 창종 35을 맞이하는 한국의 몇 안 되는 신흥종단이다. 우리 총지종의 역사는 결코 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명멸되어온 수많은 신흥 종단을 생각할 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나이로 35년이라면 이제 어엿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종단은 여러 모로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속도 또한 매우 느리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강 종령님의 종단 중흥에 대한 의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종단의 발전이 종령 한 분의 의지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종령의 영도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여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승단의 각오와 노력이 없으면 결실을 맺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효강 대중사의 확고한 중흥에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우리 종단이 명실상부한 한국 유수의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 승단의 화합과 개혁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승단 구성원 모두가 교세확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개혁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교세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종단은 무슨 명분을 붙이더라도 존재이유가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교세확장을 위한 모든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헛된 명분론에 사로잡혀 뚜렷한 대안도 없이 개혁을 주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릴 적 웃을 입겠다고 고집한다면 우스운 일인 것처럼 시대가 바뀔 만큼 교화방편에 대한 변화도 당연히 따라 주어야 뒤처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무사안일과 폐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개인의 수행을 핑계로 일반 민중의 교화에 소극적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내는 데에만 목을 맨다면 이는 대승불교의 보살로서 그리고 법사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 대승불교는 자리(自利)보다도 이타행에 더 무게를 두는 만큼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대중을 구제하고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종단의 중흥은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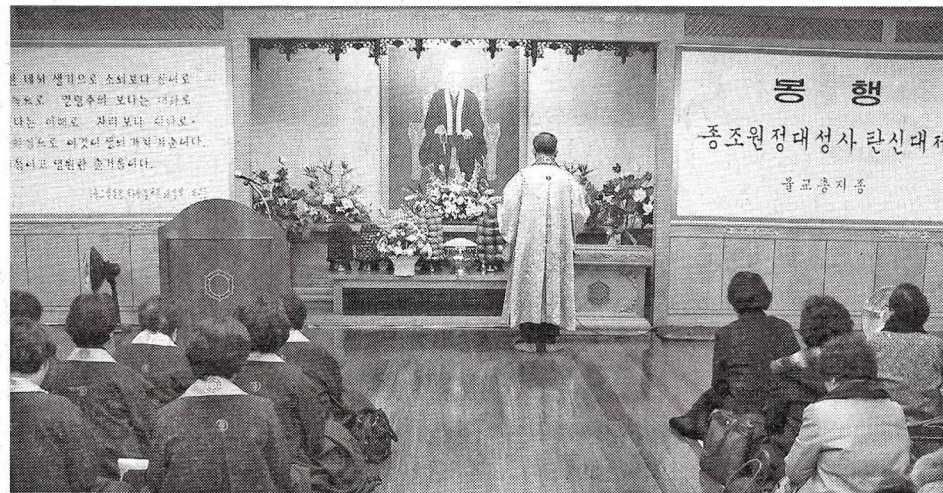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고 첫발을 내디디기 두려워하는 폐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리는 폐배주의의 극복이 종단 중흥의 또 하나의 관건이다. 벽이 무너지면 비약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울타리를 과감하게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종단의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재등용이 필요하다. 시대가 모든 부문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무리이다. 모든 직책에 대한 인사배정도 자리 채우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인재를 과감히 등용되되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외부 인사의 발탁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중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총합하여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로서 종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기대된다.

“즉신성불의 정통밀교 중흥”

총지종 창종조 원정대성사 탄신대제



총지종 종령 효강대중사가 종단발전을 위해 전 승단과 교도가 응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1월 26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99주기 총지종 창종조 원정대성사 탄신대제를 봉행하였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1월 26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99주기 총지종 창종조 원정대성사 탄신대제를 봉행하였다.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이 불제의 도리요, 이 땅에 윤원대도, 즉신성불의 정법밀교를 뿌리내리시어 법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시하신 원정대성사님께 영도려 감사드리며, 그 보은의 마음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전 승단과 교도

는 더욱더 응맹정진하고, 탄신 100주년에는 종단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창종조의 교상과 사상을 조명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 제10대 종령 효강대중사 추대법회를 2월 17일 오후2시에 총지사에서 종단내부법회로 봉행됩니다.
- 상반기 진도국기 49일불공이 2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사원에서 봉행됩니다.
- 인천 시범사 환수원 전수 장녀 이소영 양의 결혼식이 2월 18일 오후4시 50분에 서울대학교 호암교 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대법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다수의 가족이 거주하는 대가족사회에서 소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핵가족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치관,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존 사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조급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문제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를 지나 2020년에는 전인구의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노인의 수는 급증하게 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노인복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인복지

의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복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을 발표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매년 노인요양원 10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설립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상 노인 거주지역 인근에 기존 건물 매입 등을 통해 설치하는 입소시설로 본인이나 가족 상태의 여건에 따라 주간서비스나 방문간병·수발서비스 병행이 가능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을 정부에서는 108평기준으로 1개소당 3억 8천만원의 신축보조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부터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차후 노인들의 노인요양을 현재의 건강보험 노인요양을 위한 보험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4개시에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원 시설확충, 노인보장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생활보

서 “밀집국토와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여 중생구제의 대원을 이룩하신 원정대성사님의 뜻을 살리고, 종단은 창종 당시의 대원을 다시 되새기며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 연구에 매진하여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제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속에 우뚝 선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응맹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령에하를 비롯하여 스승과 교도들은 ‘원정 기념관’에 전시된 원정대성사의 유품과 창종 당시의 사진들을 관람하며 이 땅에 밀교를 흥포하신 원정대성사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대성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원정대성사의 유고집 발간, 각종 세미나, 창종 당시의 수행법 등 다양한 연구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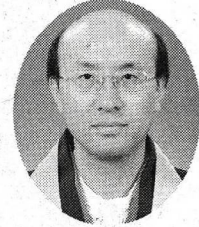
스승 인사발령



우인 정사 실보사 주교



보명심 전수 실보사 근무



원당 정사 벽룡사 주교



향음심 전수 단향사 주교



혜원정 전수 혜정사 주교



승원 정사 정각사 근무



묘원화 전수 정각사 근무

노인복지는 무주상 보시행의 실천

호대상자인 저소득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자보다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부양문제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수발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맞벌이부부 증가, 노인수의 증가 등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독거노인들은 자녀들의 보살핌에 대한 결여로 인해 건강,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일반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종단에서는 수십년 동안 종단을 위해 봉사했

던 노인교도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교도들이 퇴전하지 않고 신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교도들은 종단의 숙원사업으로 노인요양원과 종단의 장묘시설 건립을 서원하여 왔으며 종단내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직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란 불교의 “지혜”정신으로 어떤 댓가나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닌 무주상 보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거리낌 없는 보시행을 행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5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정심사 박옥란 1.18 20,000	기 로 상지화 1.23 10,000	백월사 박삼순 12.30 10,000	운천사 무명씨 12.29 75,000	함음사 박지용 1.17 20,000
개천사 광동규 12.30 50,000	기 로 수종원 1.23 10,000	백월사 이갑진 12.30 10,000	자석사 우바이 1.12 70,000	함음사 박지홍 1.17 20,000
개천사 김홍련 1.3 10,000	기 로 자선화 1.23 10,000	벽룡사 남익 1.11 10,000	정각사 구정희 1.18 20,000	화음사 이재호 1.4 5,000
개천사 무명씨 1.13 5,000	단음사 이규성 12.30 5,000	벽룡사 오기순 1.20 10,000	정각사 김점남 12.28 10,000	흥국사 강신업 1.3 10,000
개천사 무명씨 12.28 5,000	덕화사 교도일동 12.29 1,500,000	벽룡사 오미순 1.12 10,000	정각사 김필연 12.29 10,000	흥국사 여순애 1.3 20,000
개천사 무명씨 12.29 100,000	만보사 김정희 1.18 10,000	삼밀사 김주희 12.23 20,000	정각사 남숙자 12.29 20,000	흥국사 이금순 1.3 20,000
개천사 이희권 12.26 10,000	만보사 민분순 12.23 10,000	선립사 대덕 1.12 10,000	정각사 노점호 1.6 20,000	무명씨 1.13 10,000
개천사 장진식 1.3 10,000	만보사 박정심 1.2 10,000	선립사 정복지 1.10 10,000	정각사 박말연 1.4 5,000	무명씨 1.13 20,000
관성사 신막심 1.3 10,000	만보사 배정임 1.13 10,000	선립사 정향식 12.30 10,000	정각사 박정희 12.29 50,000	무명씨 1.13 10,000
관성사 이시우 12.29 10,000	밀인사 무명씨 12.28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17 100,000	정각사 박훈희 1.18 10,000	무명씨 1.13 10,000
관성사 이혜원 12.30 5,000	밀인사 신대식 1.12 5,000	수인사 김봉기 1.12 10,000	정각사 설성희 1.10 5,000	무명씨 1.16 20,000
관성사 황성녀 12.23 10,000	밀인사 신동희 1.12 5,000	수인사 한애숙 12.29 20,000	정각사 이상열 12.27 10,000	무명씨 1.3 30,000
국광사 복기운 12.29 10,000	밀인사 신동희 1.12 5,000	실보사 송희준 1.18 10,000	총지사 이인성 1.18 30,000	무명씨 12.27 10,000
기 로 대관 1.23 10,000	밀인사 이연수 12.30 10,000	실보사 이순옥 1.13 5,000	총지사 정광행 1.2 100,000	이화수 1.12 5,000
기 로 대자행 1.23 10,000	밀인사 이취임 12.27 100,000	실보사 이순옥 12.28 5,000	총지사 최순전 1.17 10,000	
기 로 법장화 1.23 10,000	밀인사 이혜성 1.12 5,000	실지사 박병성 12.27 5,000	해정사 이광호 12.23 30,000	
기 로 불멸심 1.23 10,000	밀인사 정정희 12.29 5,000	실지사 조원호 1.4 3,000	해정사 조성기 12.27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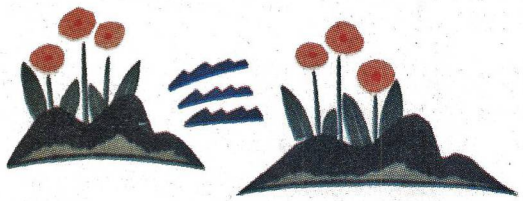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자료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편번호: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채널을 바꾸듯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있으면 리모콘으로 열린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마 수십 개의 채널이 있겠지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다가도 열린 리모콘을 눌러 응서의 채널로 마음이 솟아오를 때도 숨을 고르고 자비의 채널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 분노, 절망, 조급함 이러한 채널을 누르기 보다는 존중, 용서, 희망, 기다림이라는 채널에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문운정/수필가

-네 부류의 사람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 정진권/수필가

또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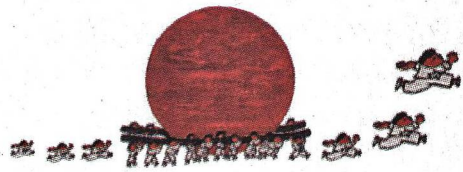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갑니다.

지금은 비록 좋은 환경속에 살고 있으나 나쁜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어두운 운명에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쁜 환경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간다면 운명은 밝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 박경준/동국대학교수

- 우물에 뜬 달



하늘에 달이 뜨면 우물에도 뜬다.

옛날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물병을 들고 우물에 갔습니다.

맑은 물 위에 달이 환히 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달이 하도 가지고 싶어서

물과 함께 길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 물병을 기울여 보았습니

다.

달은 간 곳 없고 물만 쏟아졌습니다.

우물에 환히 뜬 달은 여간 아름답질 않습니

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짜 달은 아닙니

다.

진짜 달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 정진권/수필가

이달의 명상

시간이라는 것은 지날때는 느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한없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매 순간마다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때는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부경』에는 "흘러가는 것을 뒤쫓지 마라. 오지도 않은 것을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만을

오늘 할 일을 하라

보아야 한다. 흔들림 없이 동요됨이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은 누가 죽을 지 모른다. 아무도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잘 아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실천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이를 알아야 현자라 하고, 마음을 평정한 자라 일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

을 하고 노력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은 대체로 잘 실천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거창한 계획만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아무도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루만 살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고

-반야심경 제 47화(마지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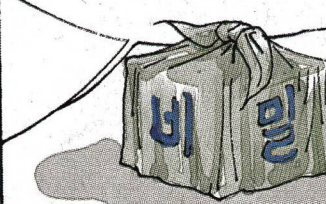
극그림/정수일(http://home.paran.com/octagonp)



故說般若波羅蜜多呪說呪曰(고설반야바라밀다주족설주왈) 글자 그대로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즉, 주를 설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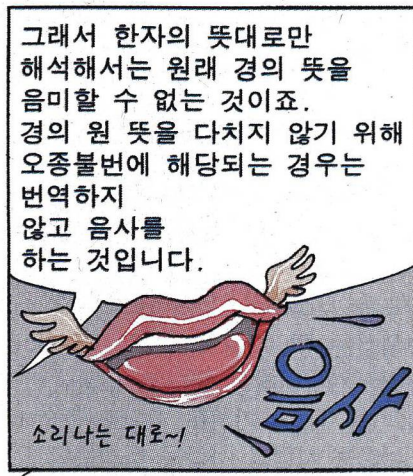
그새 주문의 효력이 떨어졌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원래 이 구절은 비밀스런 주문으로 현장법사께서 창안한 오종불번(五種不翻: 다섯 가지 번역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죽, 1)인도에는 있으나 중국에는 없는 것. 2)한 단어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 3)비밀스러운 것. 4)옛 습관을 따르는 것. 5)번역하면 원어의 의미를 다치는 것. 에 해당되는 경우를 오종불번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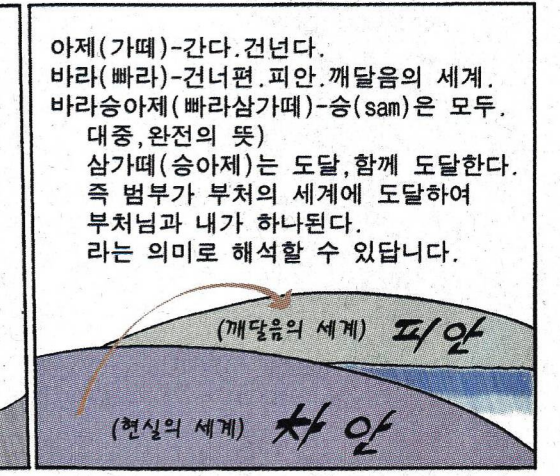
오종불번!



그래서 한자의 뜻대로만 해석해서는 원래 경의 뜻을 음미할 수 없는 것이죠. 경의 원 뜻을 다치지 않기 위해 오종불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번역하지 않고 음사를 하는 것입니다.



범어로 (가때가때 빠라가때 빠라삼가때 보디스와하-)이지만 음사하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라고 하며 굳이 각각의 뜻을 풀이하자면..



아제(가때)-간다. 건넌다. 바라(빠라)-건너편, 피안. 깨달음의 세계. 바라승아제(빠라삼가때)-승(sam)은 모두 대중, 완전의 뜻. 삼가때(승아제)는 도달, 함께 도달한다. 즉 범부가 부처의 세계에 도달하여 부처님과 내가 하나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제사바하~! 모제(보리)는 처음이며, 사바하는 끝입니다. 즉, 깨달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여 결국 깨달음을 이룬다. 는 말이며 모든 진언의 끝에 붙는 말입니다.



가세! 가세!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세! 피안의 세계로 온전히 건너가 깨달음을 원한히 이루세!



혹자 여러분!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반야심경편을 끝맺고 다음 호부터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천수경' 편이 연재됩니다. 음마니반메홍...

그 동안 부족한 글과 그림을 보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주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인연을 얻게 되는 협경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데 일념이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이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열매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을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죽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대나무꽃도 더불어 상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천죽 54과 염주 ₩2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마음공부가 되는 영화 이야기

백지순/총지사 교도

2) 왕의 남자

그것이로고, 그것이로고.....



그들에게 궁의 삶은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을 터!

가여운 이들의 거침없는 유취

늘 거침없이 살고자 했던 장생에게 놀이는 그야말로 그의 심장이었으며, 남자이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지만 여자도 아닌 공길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헛터였다.

노란 연산에게는 선왕과 대신들의 압박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 보여주었던 것이 놀이였던 셈! 이들에게 놀이판은 그들 삶의 유일한 헛터였을 터, 하여 벌어지는 놀이는 놀이지만 놀이가 아니고, 삶이지만 또 삶이 아닌, 그것이 되고 만다.

어찌 그 누구를 탓하리오

『왕의 남자』에선 손가락질할 이들이 없다. 잔혹한 왕, 연산조차 어미의 젖을 찾듯 녹수에게 안기는 장면이나 공길에게 인형극을 보여주며 '아바마마'를 외치는 장면에서는 한 시대의 사생아로 태어난 슬픈 군주로 비취질 뿐이고 또한 장생과 공길의 동지애에 가까운 사랑도 동성애적 코드보다는 사람이 사람이 아끼는 것으로 비취질 뿐이다. (어쩌면 편집의 눈가림일 수 있지만)하여 이들의 신명나는 놀이 한 판도 그냥 웃을 게 없고, 이들의 눈물 또한 쉬이 흘리게 없으니, 어찌 가슴을 치지 않으며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원작인 연극의 대사들이 더욱 영화에서 살아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다 해도 주연과 조연을 막론한 배우들의 열연과 고스란히 살아난 조선시대의 영상, 그리고 귀에 착착 감기던 맛깔진 음악까지 어느 하나 모란 곳 없이 잘 만들어진 영화임이 분명하다

더 이상 자신이 다치지 싫어 남들을 베어가기 시작했던 슬픈 왕, 천하다 천한 몸이지만 줄 위에서만은 이 세상의 왕이었던 장생, 그리고 두 왕의 한 난자였던 공길. 유독 어지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그들의 슬프고 고운 놀이 한판....

길(이준기 분)은 왕 앞에서 한판 놀이를 청하고 결국 연산군 앞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놀이를 하게 된다. 결국 장생과 공길은 이같은 위기를 기회로 궁궐의 광대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한판 놀다가시게!

때는 연산군(정진영 분)이 녹수(강성연 분)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시절, 왕을 능멸하는 놀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의금부로 잡혀온 장생(강우성 분)과 공

- 조선시대 궁중 놀이극의 멋스러움을 보고 싶다면...
- 제대로 재현된 역사의 한 조각을 맛보고 싶다면...

한 마디



정보 다이어트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

21세기 들어와서 세계경제가 FTA에 의하여 요동치고 있다.

21세기 경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체제라는 다자간 체제와 지역 블록화 체제인 FTA체제로 양분화되고 있는데 WTO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면서 일종의 지역 특례무역협정인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익의 동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FTA의 성격은 크게 구분지어 말한다면, 특혜무역협정, 지역협정, 교역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WTO제회회원국 가운데 FTA후반국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FTA를 안하면 이제 줄어드는 45%의 시장에서 수출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경제의 70%이상을 해외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써 FTA를 하지 않으면 고립하게 된다.

우리의 주요교역 상대국인 EU,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등 주요국들이 모두 10개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우리 경쟁상대인 일본, 중국 등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FTA를 추진하고 있다.

위기이자 기회인 FTA를 마음을 열고 현명히 준비하면 FTA라는 무한한 기회의 신대륙이 열린다.

생활의 지혜

- 깊이 박힌 가시를 빼내는 방법
손발에 깊이 박힌 가시는 빼기가 힘들다. 바늘이나 핀셋으로 빼지 못한 가시에는 고약 을 써보자.

고약은 가시를 빨아내는 데다 열과 통증까지 없애주므로 좋을 것 같다. 고약대신에 부추를 짓이겨 사용하면 가시가 저절로 뾰족하게 살갗위로 솟아 오른다. 가시를 빨아낸 다음 소독하면 굼지 않는다.

- 편두통 없애는 방법
머리 한쪽이 쿵쿵 수직 때를 벌꿀이 좋다. 벌꿀 한 숟가락을 먹으면 넉넉잡고 한 시간 이내에 편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이외에도 머리가 아픈 쪽 콧 구멍에 무릎을 약간 넣고, 따뜻하게 데운 신선한 콩비지를 헝겊에 싸서 수시는 자리에다 대고 있으면 얼마 후에 통증이 가라 앉는다.

- 찬바람에 얼굴이 빨개진 경우
겨울철에 찬바람만 쐬면 혈액 순환이 안되어 얼굴이 유난히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

이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5분 동안 습포를 한 다음 콜드 크림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있다.

또한 계란, 우유, 녹황색 채소 등 비타민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수면에 대하여

'수면은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수명을 80세 기준으로 하여 평균인생의 1/3이 수면(약30년)으로 보내게 되는 시간이다. 인간에게 하루 가장 이상적인 수면시간은 8시간이며, 속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분 정도로 '축시(새벽 1시~3시)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수면을 돕기 위해 필요한 유도시간을 고려했을 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인체에서는 '자연시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줄어들어 몸을 들어야 할 이유를 못느끼게 되어 나이가 들어 잠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므로 숙면에 돕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에 드는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사람의 인체는 양과 음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기운은 주로 낮에 근육활동으로 왕성하고 음기운은 밤에 내장기관을 순회하며 오장육부를 지원하여 건강을 도와준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을 계속 느낀다면 오장육부중 어느 기관이 좋지 않다고 의심해 볼만하다.

참고로 낮에 하품은 산소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며 밤에 하품은 졸려서 생기는 현상이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잠이 오지 않아 고 통스러운 때 식초를 한 숟가락 마시면 신기하게도 잠이 잘 온다.

죽비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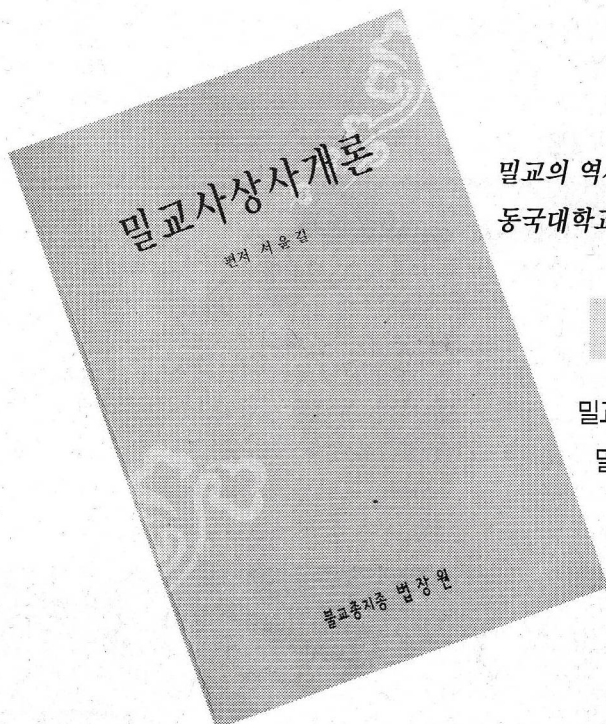
진짜 참음이란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어리석은 이는 참지 못하니
그것은 두 개 돌을 눈 안에 넣은 것 같고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지혜로운 사람은 참나니
그것은 마치 꽃이 코끼리에 떨어지는 것 같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의 눈으로써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능히 참나니
그것은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다.
좋고 나쁜 말이나 괴롭고 즐거운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돌처럼 참느니라.

『잡보장경』 중에서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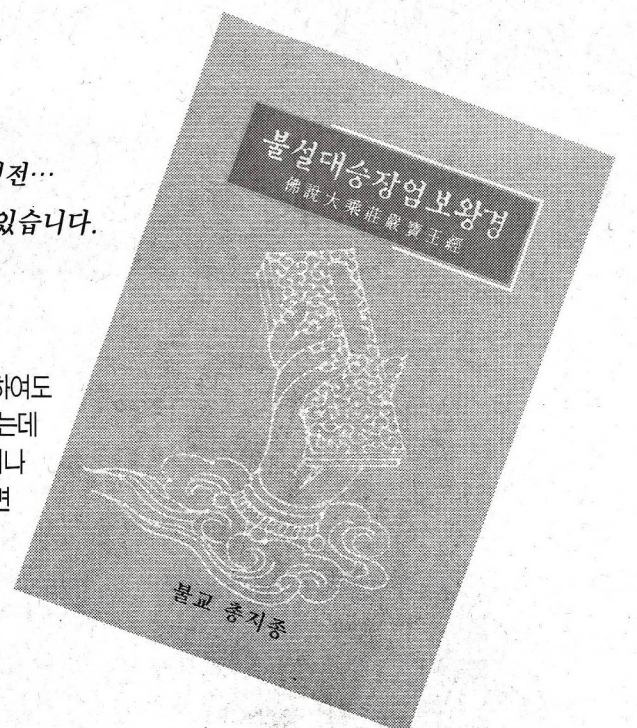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메홍)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인력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인력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기획연재>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4>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슬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교(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현교(顯敎)의 계경부(契經部)는 팔만사천으로 장으로 나누면 삼장(三藏), 승(乘)은 一三三四의 분별이 있으며 수행은 육도(六度)를 종(宗)으로 하여 五十二位가 있고 성불(成佛)은 삼대겁(三大劫)을 한정으로 한다. 법신대일여래의 설(說)한것을 밀교라 함이나 자성수용불은 자성수용법 인연고로 자권속(自眷屬)과 각각 삼밀문을 설한 것이다. 이 삼밀문은 여러내증지(如來內證智)의 경계이므로 등각십지(等覺十地)도 능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거든 어찌 하물며 이승범부(二乘凡夫)이겠느냐.

현교(顯敎)는 방편권시(方便權施) 위주로 함이요 밀교(密敎)는 진실이진(眞實理盡) 위주함이라 현교(顯敎)는 삼검(三劫)이나 성불(成佛)을 하고 밀교(密敎)는 일생(一生)중에 불(佛)도 증(證)한다. 현교(顯敎)는 일법법신(一法身) 이름 설(說)하고 밀교(密敎)는 무량법신(無量法身) 법문 설(說)한다. 현교(顯敎)는 일분비비(一分秘) 설(說)하게 되고 밀교(密敎)는 사리구밀(事理俱密) 상(相)을 설(說)한다. 현교(顯敎)는 차정문(遮情門)의 뜻을 설(說)하고 밀교(密敎)는 차정표덕(遮情表德) 함께 설(說)한다. 현교(顯敎)는 散說門을 항상 설(說)하고 밀교(密敎)는 삼마지(三摩地)를 오직 설(說)한다.



밀교는 법신불이요, 삼밀평등, 최상승교라

그러므로 현교에서 비록 성불을 설하나 중생의 기근을 교화하기 위하여 설하기 때문에 진실한 성불이 없는 연고로 교도불(敎道佛)이라하며, 밀교는 실(實)로 성불하는 연고로 증도존(證道尊)이라 한다. 현밀(顯密)의 차이점을 다시 계승(繼承)으로 설(說)하면 다음과 같다. 현불(顯佛)은 무명(無明)하여 밝음이 없고 밀불(密佛)을 미망(迷妄)다해 남음이 없다. 현교(顯敎)는 응화이신(應化二身) 설(說)한 것이요 밀교(密敎)는 법신일불(法身一佛) 설한 것이다. 현교(顯敎)는 타(他)의 따라 교(敎)를 세우고 밀교(密敎)는 자의(自意)대로 세운 교(敎)니라.

현교(顯敎)는 인분가설(因分可說) 오직 설(說)하고 밀교(密敎)는 과분가설(果分可說) 오직 설(說)한다. 현교(顯敎)는 수행종인(修行種因) 해(海)가 필요요 밀교(密敎)는 성덕원만(性德圓滿) 해(海)가 필이라. 현교(顯敎)는 일심진여(一心眞如) 본(本)을 설(說)하고 밀교(密敎)는 삼밀평등(三密平等) 뜻을 설(說)한다. 현불(顯佛)은 무량일심(無量一心) 설(說)하지 않고 밀불(密佛)은 무량일심(無量一心) 오직 설(說)한다. 현불(顯佛)은 무량여(無量如)를 설(說)하지 않고 밀불(密佛)은 중중제망(重重帝網)

밀교(密敎)에는 오지(五智)를 오직 설(說)하며 현(顯)은 육대(六) 앞으나 밀(密)은 깊으며 현(顯)은 삼밀(三密) 어둡고 밀(密)은 밝으며 현(顯)은 삼부(三部) 어둡고 밀(密)은 달(達)하며 현(顯)은 태금(胎琴) 굴(闕)하고 밀(密)은 설(說)하며 현(顯)은 일관성불(一觀成佛)의 뜻이 없으며 현(顯)은 관자성불(觀子成佛)의 문(門)이 없으며 현(顯)은 결인성불(結印成佛)의 뜻이 없으며 현(顯)은 오백진점(五百塵點)의 시(始)를 설(說)하고 밀교(密敎)는 본불생(本佛生)의 성도(成道) 설(說)한다. 현교밀교(顯敎密敎) 교리(敎理)가 차별 있으니 위와 같은 차별을 승의(勝義)라 한다.

생활속 밀교

▶밀교의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온전한 실천행이다. 그 실천행은 전통적인 교설로서 팔정도, 십선업 등이 있고, 대승불교와 밀교를 대표하는 실천교설로 육바라밀행(六波羅蜜行)이 있다. 육바라밀은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여섯 가지의 방편을 이르는 말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수행방편이 여섯 바라밀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하기 어려운 것이 '참지 못하는 것'이다.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참구(慘劇)를 우리는 골찰 목격하게 된다. 서로 참지 않는 가운데 원망과 적개심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서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과국으로 치닫기도 한다. 분개하는 마음에 막 말이 거침 없이 튀어 나오고 독설이 난무한다. 그리고 절대 용서가 안된다. 영원히.... 이 모든 것은 결국 '참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산물들'이다. 옛말에도 '참을 인(忍)자를 세 번만 새기면 살인(殺人)을 면한다'고 했다. 참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육바라밀 가운데 실제 우리가 제일 행하기 어려운 것이 '인욕'이 아닌가 생각한다. 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부딪치고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참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종단의 교전(敎典)인 '불교총전'에서 인욕(忍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이 인욕바라밀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거든 그 소리를 메아리

와 같이 관하고, 구타를 당했을 때에는 이 몸을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이 관하고, 노여움을 당했을 때는 이 마음을 꼭두각시와 같이 관하며, 칭찬을 받으면 자기의 자성(自性)에는 아만(我慢)이 없음을 관하여 우쭐하지 말고, 꾸짖음을 입으면 본래의 심성이 두려움을 여의었음을 관하여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인욕할 것을 설하고 있다. 「보살은 마땅히 인욕바라밀에 견고하고 편안하게 머물러야 하니,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인욕이요,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것이 인욕이며, 다투는 말을 하지 않음이 인욕이요, 살해하지 않음이 인욕이며, 자기의 몸과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인욕이요, 남의 몸과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인욕이요, 몸과 뜻의 업을 보호함이 인욕이요, 탐욕과 애착을 멀리 버리는 것이 인욕

처를 준 사람,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 나를 비난하고 헐뜯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면 내 도량은 호수가 된다. 그래서 인욕은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행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인욕행이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진정한 인욕이다. 또, 인욕행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야만 나에게 관대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증오와 원망, 적대감 따지도 없앨 수 있다. 그 노력이 인욕행이다. 인욕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겸손하고 예의바른 행실일 때 하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인욕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인욕을 하려거든 내 마음을 늘 자유자재로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을 자유자재하여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인욕은 억울함이나 분노를 '참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하심과 용서, 배려,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적극적인 실천행'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의 행함이 진정한 인욕행이다. 아만과 자존심이 넘치지 않고, 미움과 증오·적개심이 사라지고, 일상이 화노애락에 초연하여 늘 평온하고 청정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른 인욕행이다. 참지 못하므로 우리의 수행은 늘 장애를 일으킨다. 참지 못하는 장애를 제거해나가는 것이 생활 속의 수행이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법정원 연구원)

인욕행(忍辱行)은 수행의 밑거름

진언수행의 길

'준제진언'을 갖추어서 말하면 '칠구지 불모심대준제 다라니'이다. 그냥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라고 한다. 이 준제진언은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 그리고 『대승장엄보왕경』과 『현밀원통심요집』에 설해져 있다. 이 가운데 준제진언의 중심경전은 전자의 세 경전이다. 후자의 두 경계는 준제진언의 공덕을 설하고 있고, 육자대명왕진언을 함께 지송하면 상승적 공덕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종단에서는 육자진언 '옴 마니반데후'와 함께 '준제진언'을 중요시 하고 있고, 법요 가운데 중심의례로 삼아 반드시 육자진언 21편 지송하고 나면 준제진언 21편을 지송토록 하고 있다. 총지종의 소의경계인 『현밀원통심요집』에서는 준제진언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준제진언은 십악오역의 일체죄업을

능히 소멸시키고 일체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진언을 지극정성으로 지송하면 단명의 중생도 무량한 수명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병을 낫을 수 있고, 관직을 구하는 자는 관직을 구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자녀를 낳고자 하는 자는 자녀를 낳고 무릇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용수보살은 "준제관음 진언을 적절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의 큰 재난과 모든 고통이 사람에게 침해하지 못하며, 인간세계 살 때나 천상에서도 존경과 복받음이 부처같으니 이와같은 여의주 만나게 되면 결정코 최상의 정각을 얻으리라"고 찬탄하였다. 이 준제진언 가운데 '나무 사다남 삼막삼뚝다 구치난 단야다'는 일종의 귀의, 예경사이고 '옴자레준제 사바

하'가 준제진언의 정주이다. 지송할 때는 이 모두를 함께 외운다. 준제진언을 염송할 때 결하는 결인을 일러 준제진언이라 한다. 준제진언에는 크게 두가지 결인법이 있다. 첫째는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에 의한 결인법으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나란히 붙여서 양 두지에 갖다 대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법』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법』 『현밀원통심요집』 등에 설해진 결인법으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벌려서 양 두지 옆에 각 붙이는 경우가 있다. 『현밀원통심요집』에 근거하고 있는 총지종은 두 번째 결인법을 채택해야 하겠지만 종조 원정 대성사는 결인법이 엄지손가락을 벌리므로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하여 첫 번째 결인법을 채택하였다. 의례를 갖추어서 준제진언을 할 때는 마땅히 준제진언을 결하여서 염송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준제진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상시 염송때와 같이 왼손은 금강권인, 오른손은 염주를 쥐고 준제진언을 지송한다.

준제진언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Social Welfare Foundation. It lists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such as '지역복지사업' (Local Welfare), '청소년복지사업' (Youth Welfare), '노인복지사업' (Elder Welfare), and '주요사업내용' (Main Program Content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oundation, such a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가릉빈가의 부처님 음성이 저 멀리~

부처님의 법문을 노래에 실고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을 찾아서



총지사 경내는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술술부는 바람결을 따라 무릇 고통과 번민에 쌓인 무명의 증생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울거리며 흘러가고 있다.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리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깊이 깨달을 수 있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시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원망은 한 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는 노랫말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불가를 부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허공의 메아리만 남긴 채 사라진다. 우리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이 창단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속에서 비운 뒤 땅이 더 굳어지고, 상처가 아물면 더 대단해 지듯이 이제는 의젓한 어른으로 성장하였으며 총지종의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의식곡과 찬불가를 부르고, 전국불교연합합창단에 가입하여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부처님 모습으로, 즐거운 일에는 즐거운 음악으로 흥겨움을 돋우고, 슬픈 일에는 슬픔으로 가득한 이웃들을 위로하며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활동하며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 합창단 단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다른 사원에서 수행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행공간이 다르지만 한 자리에 모이면 오로지 아름다운 찬불가를 부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식구가 되고,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고 한다.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는 노랫가락 속에 담긴 의미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보다 더 아름다운 진주처럼 마음 한 구석에 응크리고 있는 분노심과 원망심을 은혜로움과 감사함으로, 답답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작은 내안의 마음을 온 우주를 깨어낸 듯한 크고 둥근 마음으로 바꾸어 주기에 충분하다.

매주 마다 찬불가 연습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오늘 배웠던

“창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비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노랫가락을 읊조리고 있노라면 “그래!! 내가 성내고 화내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이야” 하며 마음자리를 살피게 된다.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가끔씩 결석한 적이 있지만 ‘그 시간동안 정말로 내 자신에게 보람된 일을 하였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오허려 합창단에서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법을 음악으로 배우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합창단 단원들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로 가득하다. 괴롭고 힘들 때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기분이 전환되고 노랫말 속에 숨어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 세상의 삶이란 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업장도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삶이 풍요하고 운택하며 복잡하고 바쁜 일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에 감사함을 느낀다.

합창단이라는 인연을 통해 얻어지는 공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노래를 부르며 솟아나는 찬희의 눈물,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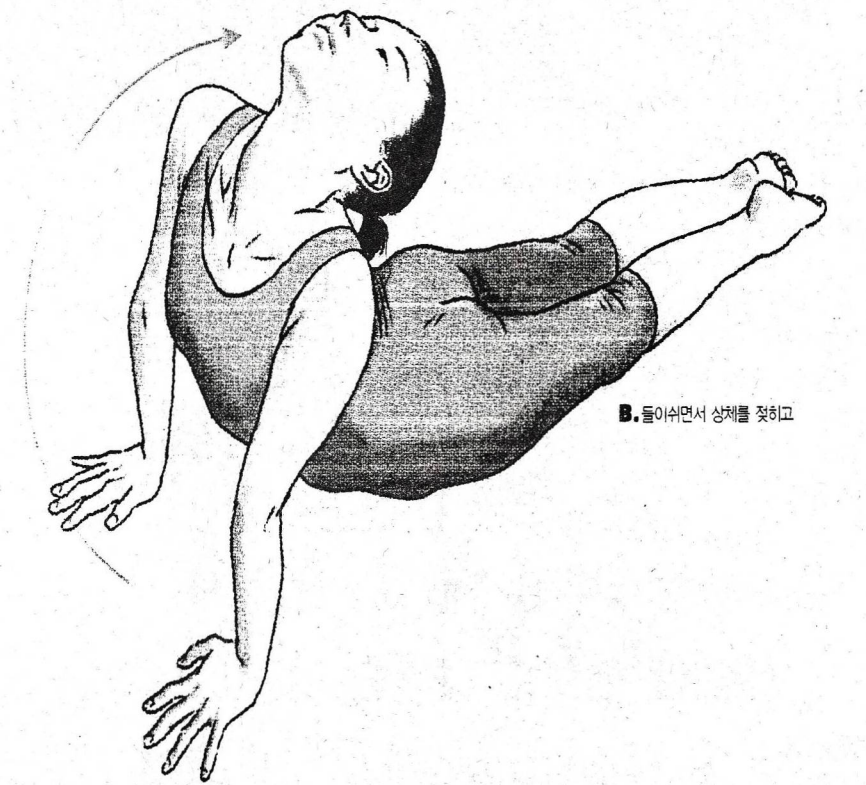
오늘 따라 며칠 동안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에 맑은 창공사이로 깨끗한 하얀 구름이 동심동심 흘러 다니고 있다. 이러한 맑은 창공처럼 합창단의 노랫가락은 어렵고 힘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남긴 채 서늘하늘에 기우는 노을처럼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 채 흘러간다.

이달의 생활요가



코부라 자세

이 자세는 머리와 경추에 아주 좋은 효과를 주며 마치 코부라가 목과 몸통을 치켜드는 것과 같은 우아한 자세이다. 이 자세는 척추가 뒤쪽으로 굽혀짐으로써 척추의 마디마디에 자극을 주고 척추 양 옆의 근육(척추기립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척추 전체에 자극을 미침으로써 요통과 좌골신경통, 디스크 증상을 완화시키며 굽은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교정효과도 있다. 또한 가슴과 흉부를 팽창시켜 호흡기 질환 및 천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상당하다. 상체 앞으로는 오장육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장애를 해소하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월경불순과 생리통,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다. 정신적인 작용으로는 기운을 안정시켜 여유로운 마음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B. 들어쉬면서 상체를 쭉하고

따라하기

1. 엎드려서 양 손바닥을 겨드랑이 옆으로 가져간다.
2. 숨을 내쉬었다가 들어쉬면서 머리, 가슴, 배의 순서로 상체를 최대한 쭉힌다.
3. 척추와 허리에 통증이 심하면 양손바닥과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다.
4. 여유가 되면 발뒤꿈치를 붙이고 팔각근을 조인 상태로 편하게 호흡한다.
5.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푼다.
6. 2 - 3 회 반복하고 뺨을 바닥에 댄 채로 편히 이완한다.

〈이한상/총지생활요가센터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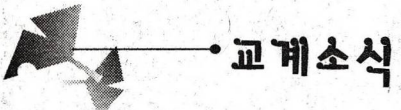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시
- ◆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락처 : 노진숙 단장
032-545-5602
018-324-5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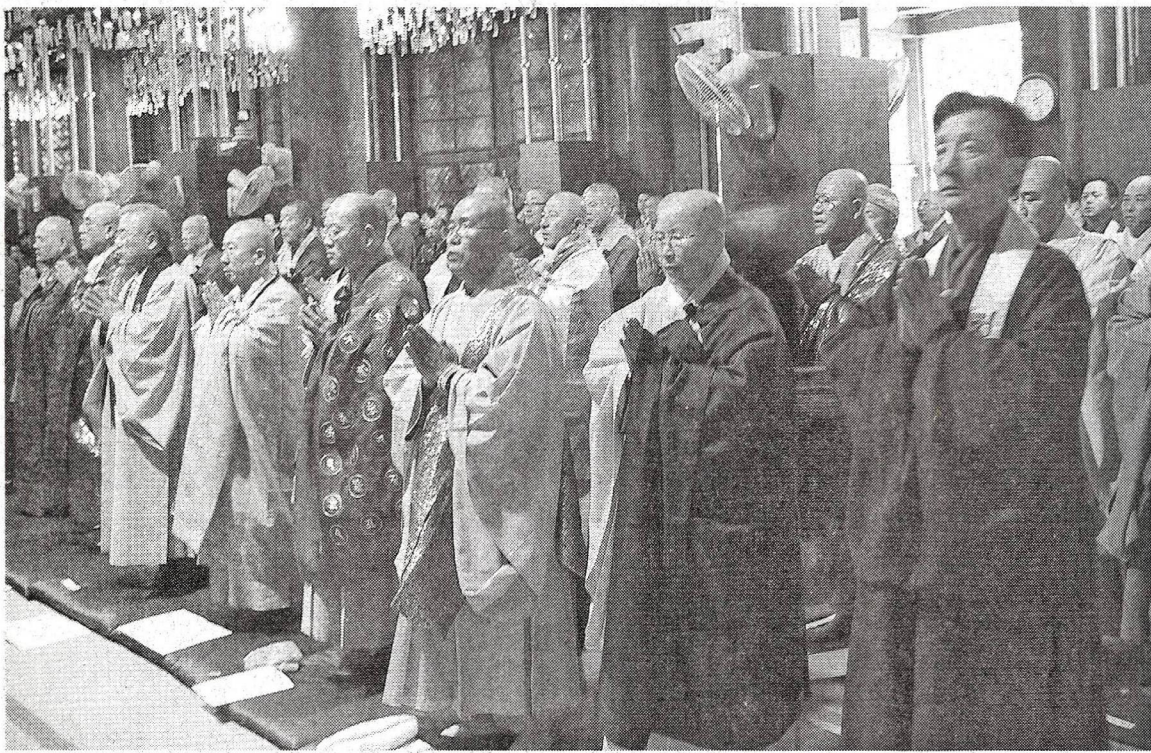
※ 교도가정의 경조사에 초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음성공양해 드립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회”

한국불교종단협 신년하례법회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불교대표단과 정·관계인사들이 불교발전을 위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0년 신년하례법회를 열어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지혜를 배울 것을 발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집과 독선, 욕망과 미혹의 굴레를 벗고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불신과 증오, 실의와 한숨, 눈물과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다툼을 버리고 나의 참 모습을 찾아내어 화합을 통해 서로 상생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움을 배우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이에 앞서 종단협 회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해를 맞아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좀더 아름답게 생활하고 향기롭고 바르게 살

아가려는 마음을 갖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종단협 신년하례회에는 우승 총지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

“종단 소식 동영상으로”

종단 홈페이지 새단장·영상 홍보 시대 개막

불교계 주요종단이 인터넷 동영상 통한 종단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고, 천태, 진각종 등 주요종단들은 인터넷 포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며 동영상 홍보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종단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홍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천태종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사찰과 종립금강대학교에 방송 시스템을 갖춘 데 이어, 180평 규모의 종로 사무처에도 스튜디오를 마련해 종단 주요 행사를 촬영·편집한 동영상상 홈페이지(www.cheontae.org)에 올리고 있다.

천태종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대중들이 행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동영상 홍보의 배경을 밝혔다. 천태종은 이미 작은 규모의 케이블 티브를 능가할 정도의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각 종단의 동영상 홍보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

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스님 등 종단협 소속 각 종단 대표자와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양성홍 포교사단 단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지 등의보감

주량, 자랑 하지 맙시다



김 장 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단체행동이나 과시를 잘 하고 싶은 우리 한국인은 자주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은 사람이 체중이 적은 사람보다 간과 수분 함량이 커서 술을 더 마실 수 있다.

그러나 흥조증을 나타내는 알레히드 탈수소효소의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술을 소량만 마셔도 알레히드가 축적되어 얼굴이 발개지고 숨이 가빠져서 술을 잘 못 먹게 된다.

한편, 매일 술을 조금씩 마셨던 사람은 기능적 내성(간의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CYP2E1 유도가 생겨 그만큼 술을 더 마실 수 있다.

술을 매일 마신 사람은 내성이 생겨 더 마실 수 있다. 어리석은 경쟁하지 말고 알맞은 음주습관을 가져야...

“누가 주량이 더 세고 남자다 운가?”하는 경합을 벌인다.

특히 대학생들이나 젊은 회사원들에게 이런 경합이 많이 있다.

주량이란 한자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양적인 척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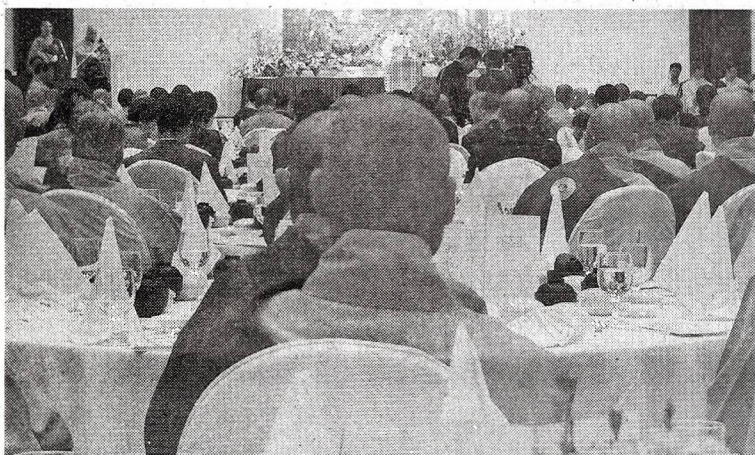
대개는 각 개인의 환경적인 요소(식사 여부, 스트레스, 당뇨, 비만, 심장병 등의 질환 여부) 및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유전적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경쟁 또는 주위의 강요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아세트 알데히드 농도가 높아져서 간이나 뇌를 비롯한 조직의 손상이나 혼수상태, 심장마비 등의 급박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교육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누가 술을 빨리 마시고, 술에 센가?”하는 어리석은 경쟁을 하지 말고, 자기 몸에 알맞은 음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여야겠다.

부산여성개발원 1월 17일 창립

원장에 코모도 이영숙 사장



◇부산지역 여성불자들의 인재양성을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성 불자 리더들이 모여 부산불교여성개발원을 창립했다.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집행위원회(위원장 왕선자)는 “여성 불자들의

정체성 확립과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불교여성개발원을 창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개발원의

시작을 알린 부산불교여성개발원은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체계적인 운영을 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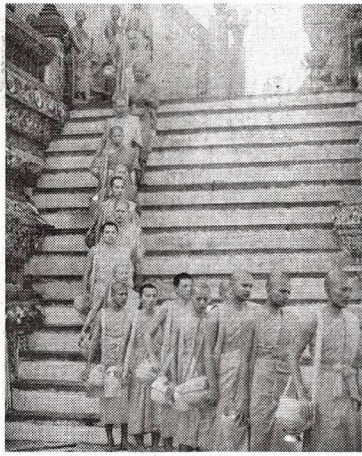
부산불교여성개발원의 초대 원장은 코모도 호텔 이영숙 사장이 맡았으며 당연직 법인 이사장 역할도 병행한다. 이영숙 원장은 전국여성경제인협회 전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전통사찰 형태의 독특한 의관을 갖춘 부산 영주동 코모도 호텔을 운영하며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소개해 온 여성리더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제정된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타종교 신도들이 모여서 사회적 목소리를 높일 때 불자로서 당당하게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불자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산시키고 사회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까지 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 ‘불교의 생활화’ 나서

불교에 대한 신뢰 회복 캠페인 일환 불경 50만 부 배포 예정



◇태국이 스님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95%가 불교신자로 구성된 태국이 불교에 대한 신뢰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교의 생활화’

에 적극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 문화부는 “일반인들과 종교 및 도덕 교육을 담당하는 4000명의 승려에게 불경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문화부 총무국은 9월부터 불경 출판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담아 청소년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불경 보급을 위해 총 8천만 바트(1바트는 원화 30원)를 투자해 불경 보급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요즘 태국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불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중특별교구 첫 상임위원회 열려

상임위 운영 규정(안) 인사조정위 운영규칙(안) 의결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월 26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내 회의실에서 교구 최고 심의 기구인 상임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 결산 및 2006년 예산안,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안), 인사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위촉된 상임 위원 21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해 상건례를 가졌으며 업무보고를 통해 군중특별교구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군중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상건례에 앞서 “군중 교구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다”며 “제도정비를 통한 교구체계 구축 등 당면 과제들을 열심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에서는 최근 교구내 주요 사안들을 의결하는 상임위원 21명을 위촉했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장 일면, 부교구장 계성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지승, 기획실장, 동선, 교육원 교육부장 법장,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이 종단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됐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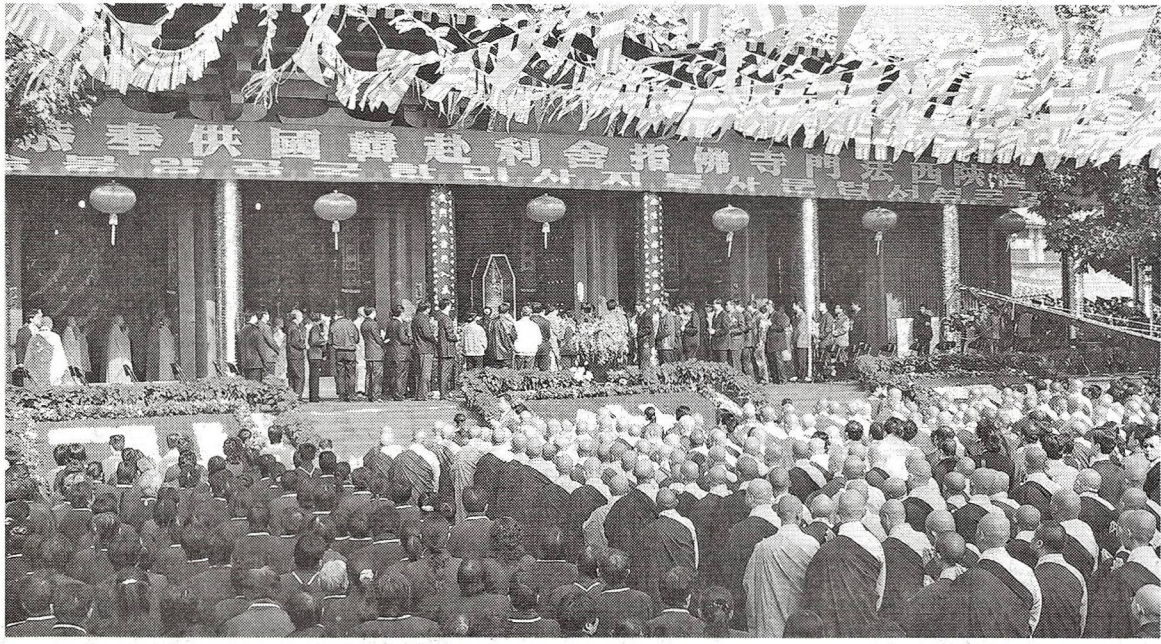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 대 상 : 일반시민
-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6시, 화·목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40,000원, 월 \30,000원
정각사 - 월 \20,000원
-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교계소식

세계불교 중심 꿈꾸는 中 불교

각국 불교 초청 4월 13일 포럼



◇중국의 불교법회에 많은 대중들이 참석하여 불교의 세계화를 기약하고 있다.

중국불교협회 세계불교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에 가속도를 붙

였다. 중국불교협회는 세계 각국의 불교지도자들을 초청, 오는 4월 13일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 창립법회 봉행

부처님 정법실현하는 신행단체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회장 송시향)가 1월 15일 실내체육관에서 '박완일교수와 함께하는 붓다의 향기' 행사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대한불자가수회가 창립한지 14년 만에 처음 갖는 지부의 출범이다.

행사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운문승가대 학장 명성 스님, 대한불자가수회장 김홍국씨를 비롯한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의 공식출범을 축하했다.

대구불자가수회원 김덕수(서부경찰서 범우회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서봉사 난타춤·난타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 2부 박완일 교수의 강연, 3부 불자가수 공연, 4부 대구불자가수회 창립법회식으로 진행됐다. 무형문화재며 공예가인 김중흥씨의 퍼포먼스와 중요무형문화재 경기소리 31호 국창 김영리씨의 공연으로 시작된 3부 공연에는 현철, 조항조, 왕소연 등 인기불자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4년간 불심으로 살아온 불자가수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구지부 출범은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의 대지대비를 몸소 실천하는 일"이라며 축하했다.

대한불자가수회장 김홍국씨는 축사에서 "대한불자가수회는 창립후 14년간 사회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음성포교 최일선에서 부루나리의 역할을 해왔다"며 "대구지부 또한 향후 영남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자리잡아 자리이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 송시향 회장은 "대중가요 속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고 약사여래의 가피가 넘친다면 노래야말로 부처님의 설법이며 범천의 향음이 아닐 수 없다"며 "대구지역 불자연예인들이 무명고해를 밝히는 대광명 등이 되고자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약 20명의 회원으로 출범하는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지역의 대표신행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 음성포교 사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16일 항주에서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한다. 애초 2004년 세계불교포럼을 발의하면서 한국·일본 불교계와 공동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으나, 한일 불교계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사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개최 시기까지 확정했다. 그리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해 국내 각 종단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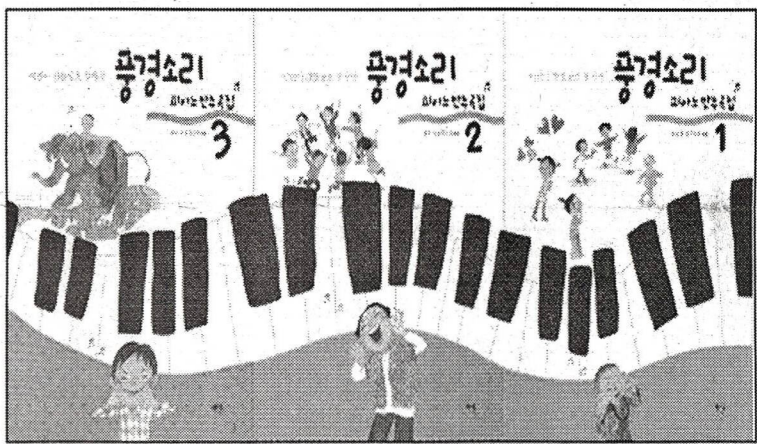
보내왔다.

중국불교협회는 2004년 세계불교포럼 설립을 발의하면서 "평등하고 다원적이며 개방적인 고차원의 교류 플랫폼을 마련해 세계 각국의 불교계 벗들을 초청하고 우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토의하며 불교의 주장을 현양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불교계도 원칙적 입장에서 3국이 공동으로 세계불교포럼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으나, 중국 측이 자국의 입장을 홍보하는 전시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것.

한일 불교계는 특히 세계불교포럼과 관련, "중국이 동북아 불교를 발판 삼아 세계불교의 중심국가로 성장해 세계의 종교 영향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불교포럼 개최를 추진해온 중국 측 입장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불교계는 중국불교협회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4월 세계불교포럼 참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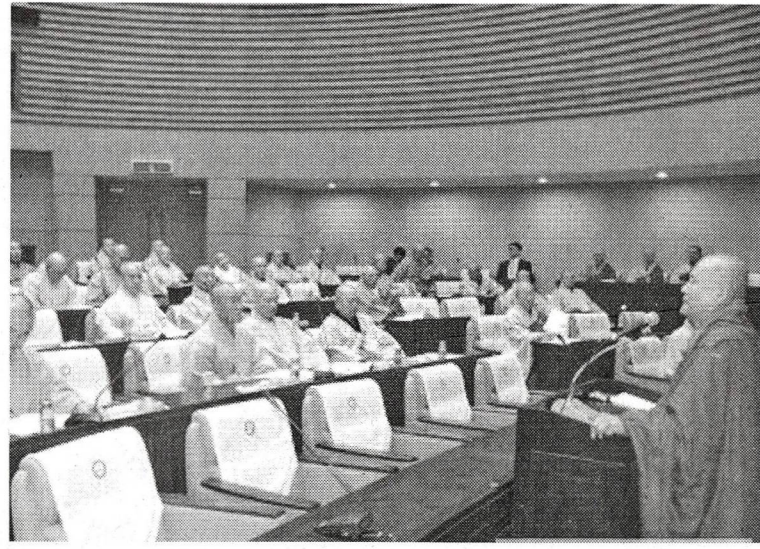
찬불동요 108곡 엄선...초·중·고급 3권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찬불동요집이 출판되어 어린이 포교를 기약하고 있다.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가 지난 10년간 발표한 찬불동요에서 엄선한 108곡을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I II III'으로 발표했다. 개인이 사비를 털어 교본을 만든 적은 있으나 여러 명의 작곡·작사·편곡 등이 어우러진 피아노 반주곡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피아노 반주곡집 세 권은 초·중·고급으로 나뉜다. 1권은 반주곡집 I II III으로 발표했다. 개인이 사비를 털어 교본을 만든 적은 있으나 여러 명의 작곡·작사·편곡 등이 어우러진 피아노 반주곡집이



◇조계종 주지회의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가시화"

조계종 수입감소 대책마련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1월 10일 환경부 이재용 장관 업무 보고를 통해 7월부터 변산반도·태안해안·다도해·한려해상 등 4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는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 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계획 단계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국립공

원 입장료 폐지 문제에 대한 해당 부처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13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1개 사찰과 9개 도(군)립공원에 위치한 9개 사찰이 소속된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2006년도 첫 관공료 사찰 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회의의 권두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중단 차원에서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지관 스님의 이날 발언은 2006년 환경부 신년 업무 보고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이 공원 입장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獨불교학자 장서 1만 여권 보시

"초기불교 연구에 활력 실어 줘"



베헤르트 교수

자인 가이어로부터 사사받았던 그는 1968년 이후 괴팅겐,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학술원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유럽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또 쾰카타 대학, 예일대학, 일본동경대학 교향교수와 대만불교계 실론불교계 체류 등 동북아 및 동남아 불교계 현장연구에도 힘썼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스님)이 초기불교 연구의 석학 독일 하인리히 베헤르트(1932~2005·사진) 교수의 장서 1만여 권을 인수해 국내 불교학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키로 한 장서에는 산스크리트 경전연구 문헌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학자들과 교류한 자료들도 많아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괴팅겐대에서 인도학을 가르쳤던 고 베헤르트 교수는 25세에 스리랑카 지역불교 연구를 시작으로 뮌헨대에서 인도학과 비교언어학을 전공했으며, 남방 불교 특히 스리랑카 불교의 권위자로 꼽힌다.

불교사본 연구가인 발트슈미트의 연구전통을 잇고 팔리어학

지독인 괴팅겐을 방문한 가산 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 현원 스님은 고 베헤르트 교수의 부인 마리아네 씨를 만나 베헤르트 교수가 소장했던 불교 관련 서적을 넘겨받았다.

현원 스님은 "인수한 장서는 국내 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8, 19세기에 발견된 연구서도 많아 국내 불교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한 장서들은 2월 말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태권도
-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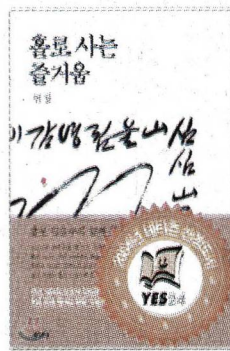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애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추천 도서

홀로사는 즐거움

법정스님 저 / 샘터출판사 / 정가 9,000원



혼자 살아온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남은 세월을 다할 때까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은 젊음만이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결같이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자기 관리를 위해 내 삶이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된다. 나의 말과 글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부터 할 수만 있다면 유서를 남기는 듯한 글을 쓰고 싶다. --p. 본문 중에서 더욱 깊어진 사유의 언어와 한층 더 맑아진 영혼의 소리를 담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스님의 신작 산문집, 법정 스님은 얼마 전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의 회주 등 모든 직책을 벗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과 침묵을 선언하셨다. 존재에 대한 성찰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는 진정한 수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스님의 이번 책에는 [오두막 편지] 이후의 스님의 생활 모습과 생각들을 담았다. 홀로 사는 즐거움을 말하지만 결국 홀로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임을 설교하는 책이다.

깊고도 큰 울림의 깨달음을 일으켜 줄 것이다.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

서광스님 저 / 북폴리오 / 정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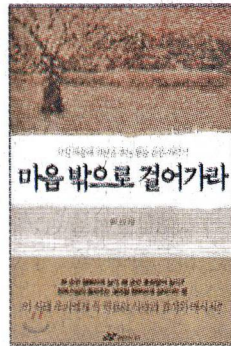


한 사람이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은 그가 부모가 되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뿐 아니라 결혼생활, 인간관계에서까지 되풀이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문제는 바로 부모 자신에게서 기인하고,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잘못 배우면 평생 잘못 살게 된다는 식으로 아이의 인생에 대해 섣부른 결정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모로 인한 상처, 부모로 인해 잘못 배운 데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는 평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그 고통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부모가 사랑해 마지 않던 아이의 것이다. 그 짐을 덜어주는 길이 모든 교육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10여년이 넘도록 아이들과 부모들의 상담을 해온 필자인 서광스님의 생각이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을 향한 인생법을 설명하고 있다

마음밖으로 걸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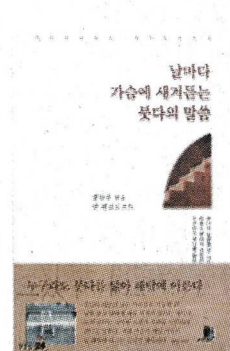
정목스님 저 / 랜덤하우스 / 정가 9,800



사회봉사로, 불교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정목스님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65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전한다. 스님이 진행하던 불교방송의 인기 음악프로그램인 '마음으로 듣는 음악'에 소개되었던 방송 글 중에서 사랑, 용서, 이해, 행복, 감사에 관한 주제를 담은 업선된 100여 편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다. 소박하지만 즐거운 삶, 사랑하며 살아가기, 남을 위해서 베풀기, 미운 사람 용서하기 등 곳곳에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1995년부터 시작한 난치병어린이 돕는 운동인 '작은사랑'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스님은 인제수의 전역을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날마다 가슴에 새겨드는 붓다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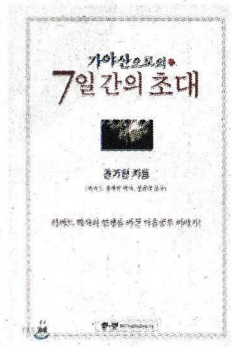
정찬주 저 / 양문출판사 / 7,500



"카사파여,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인 번뇌의 완전한 주체라고, 처음부터 그러하였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번뇌를 가져온 것은 남의 행위라고 말한다. 카사파여, 너는 이 두 견해를 모두 피해야 한다. 너의 가르침은 다르다. 모든 행위는, 너의 행위든 남의 행위든 간에 무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네 안에 있는 무지를 없애으로써 또한 네 스스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무지를 없애으로써 지혜가 찾아오고 번뇌는 사라지게 된다 --본문중에서 붓다의 가르침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과 같이 낯익은 불경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불경이 전해주는 심오한 가르침과 교훈을 깨닫기란 힘든 일이다. 이 책은 현대인의 정서와 현실에 맞는 글로 새로이 붓다의 말씀을 옮겨, 지금 우리의 삶에

가야산으로의 7일간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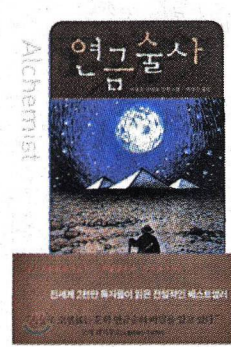
권기현 저 / 한언출판사 / 정가 8,900원



마음의 조화란 마음의 평안을 말한다. 진정한 기쁨을 말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조화를 이룰 때 얻게 되는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광명의 세계에 살게 된다.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비워낸 사람은 얼굴부터 밝고 화사하다. 해맑고 잔잔한 기쁨에 가득 차 있다. 늘 그렇게 안온하게 산다. 그리고 주변에 늘 평화로운 파장을 전한다. 화내는 마음, 짜증을 잘 내는 마음, 섭섭한 마음, 오만한 마음, 우울한 마음, 유혹에 쉽게 빠지는 마음... 어두운 상념, 음습한 상념, 부조리한 상념, 부정직한 상념들... 이러한 일체의 부조화된 상념들과 나쁜 습관들은 모두 철저히 버리고 비워야 할 대상들이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던 저자는 어느날 '내면의 자신'과 '보여지는 자신'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던 그가 마음수련 공부로 통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간 마음을 놀려왔던 문제에서 벗어났다.

연금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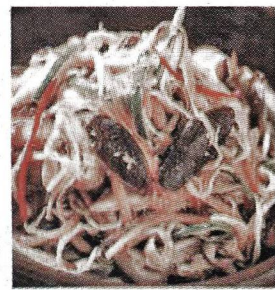
파울로코예로 저 / 문학동네 / 정가 8,000원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본문중에서 브라질 작가 '코엘료'의 이름을 굳혀준 그의 대표작이다.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담백한 이야기를 축으로, 신비로운 체험과 심오한 생의 물음들을 던져준다. 책을 좋아하는 양치기 산티아고는 며칠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다. 양과 함께 놀던 아이가 자신의 손을 잡아끌더니 이집트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꿈. 그러던 어느날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현현히 한 노인이 나타나 가지고 있던 양의 심부의 일을 자신에게 주면 피라미드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는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때 행운의 표지인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두 사람 사이로 날아들어왔고, 산티아고는 운명처럼 노인에게 값을 치르고는 금으로 된 흉패 한가운데 박혀 있던 흰색과 검은색 보석 '우림과 톱뿔'을 받는다. 그리고는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한 정처없는 여행길에 몸을 싣는다.

이달의 사찰음식 ②

▶ 버섯잡채



재료: 표고버섯 10장, 느타리버섯 100g, 팽이버섯 1봉지, 목이버섯 50g, 오이 1개, 당면 100g, 진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식용유 4큰술, 참기름 1큰술, 참깨 1큰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방법: ① 표고버섯은 채썰어서 양념하여 볶아 식혀 두고, 느타리버섯은 생으로 손질하여 잘게 찢은 후 양념하여 살짝 볶는다. 팽이버섯은 진간장으로 애벌 간을 하여 볶아 식혀 둔다.

② 오이는 5cm로 잘라 돌려 깎아 채썰어 절인 후 꼭 짜서 달군 팬에 빨리 볶아 식혀 둔다.

③ 냄비에 물을 넉넉히 두고 진간장, 식용유를 넣어 끓기 시작하면 당면을 삶아 건져서 식힌다.

④ ①, ②, ③의 재료를 넣고 진간장, 설탕, 참깨, 후추, 참기름으로 양념을 하여 무친다.

▶ 느타리버섯탕



재료: 느타리버섯 200g, 들깨즙 6컵, 밀가루 1컵, 녹말가루 1/3컵, 식용유 5컵, 청장 2큰술

만드는 방법: ① 느타리버섯은 깨끗이 씻어 앞맛은 크기로 찢어 준비한다.

② 밀가루와 감자가루를 섞어 냉수로 반죽하여 ①을 섞어 섭씨 180도의 기름에 튀겨낸다.

③ 들깨를 씻어 갈아서 즙을 만든 다음 냄비에 끓이면서 청장으로 간을 한다.

④ 들깨즙이 끓으면 튀겨 놓은 버섯을 넣어 살짝 끓인다.

▶ 호박김치



재료: 배추 1/2포기, 무, 늙은 호박 (중간 크기) 1/2개씩, 고춧가루 1컵, 찹쌀가루 1/2컵, 물 2컵, 다진 생강 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① 배추는 소금에 절여 3cm 길이로 썬다.

②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씨를 파낸 뒤 3~4cm 크기로, 0.7cm 두께로 썬다. 무도 같은 크기로 썰어 호박과 함께 소금 약간과 고춧가루 1/2큰 술을 넣어 버무린다.

③ 찹쌀가루에 분량의 물을 부어 잘 섞고 한소끔 끓인 뒤 적당히 식으면 나머지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잘 섞는다.

④ ③에 배추 무 생강을 넣어 잘 버무린 뒤 항아리에 꼭꼭 눌러담고 우거지를 빈틈없이 덮은 다음 돌을 얹는다.

⑤ 이를 후에 삼삼한 소금물을 만들어 끓여 식힌 뒤 항아리에 부어 식힌다.

▶ 연근지짐



재료: 연근 400g, 당근, 풋고추, 표고버섯 20g, 소금, 밀가루, 콩기름, 약간 씩

만드는 방법: ① 연근을 강판에 간 다음 채에 밟쳐 물기를 약간 없애고 소금 간한다.

② 당근과 풋고추, 표고버섯은 5cm 길이로 가늘게 채썬다.

③ 콩기름을 두른 팬에 ①을 한 숟가락씩 떠놓고 ②의 재료를 나란히 얹어 모양을 낸 다음 지진다.

▶ 두부다시마말이



재료: 마른 다시마 1장, 두부 1모, 표고버섯 5장, 당근 50g, 풋고추 2개, 들깨가루 1작은술,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 ① 다시마는 물에 담가 불려서 정사각형으로 잘라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 둔다.

② 표고버섯은 더운물에 불려 곱게 다져서 팬에 살짝 볶아서 식혀 둔다.

③ 두부는 곱게 으깨어 물기를 꼭 짜 둔다.

④ 당근과 풋고추도 곱게 다져서 으깬 두부와 ②의 버섯과 함께 양념을 하여 볶아 식힌다.

⑤ ①의 다시마에 ④의 양념된 두부를 손가락 크기로 만들어 놓고 다시마를 세로로 놓아 김밥처럼 말아서 적당하게 자른다.

⑥ 초고추장이나 양념간장에 찍어 먹는다.

* 두부와 다시마는 잘 어울리는 식품이다.

(자료제공 :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개 서 초 실 버 의 원 원

양재동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여 가락신경정신과의원에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인 서초실버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철야명상수련법회”

다양한 문화행사로 포교활성화



충지종 철야명상수련법회에 일반인들이 동참하여 수행. 정진하고 있다.

충지종 법장원과 총지사는 지난 1월 8일 저녁9시부터 새벽4시까지 충지생활요가센터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과 총지사 교도들을 대상으로 '병술년

새해맞이 철야명상수련법회'를 마련하였다. 철야명상수련법회는 충지종의 수행법인 새해불공 철야7정진불공을 수정,

보완하여 요가, 찬불가, 명상, 충지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회를 마련하였다.

철야명상수련법회는 그동안 충지종 수행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자녀들과 각자들이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행법의 개발을 모색하여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법회에 참가한 교도는 “그동안 충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철야7정진 불공에 동참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철야명상수련법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종단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과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장원은 이번 철야명상수련법회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다양한 수행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나도 한마디

그동안 새해불공을 주관해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새해불공기간이었습니다.

다른 해와 같이 많은 교도님들이 새벽부터 밤 늦도록 각자의 서원은 다르지만 일년동안 꼭 성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불공을 했습니다.

저도 올해에는 한 가지 특별한 서원이 있기에 7일 동안 불퇴전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장애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로

한 해동안 관리를 잘하여 장애를 줄이기도 해야 하였지만 저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불공의 목표를 정하려 합니다.

회향일 아침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서원당

천도불공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면...

인한 고통은 회향하는 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했던 서원의 양이 저의 능력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본인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정진할 의욕을 북돋우지만 욕심이 지나쳐 너무 높게 잡게 되면 좌절하거나 지쳐서 기본적인 목표마저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불공기간에는 올

에 도착하였습니다.

힘겹게 천도불공까지 마친 후 (기억하기에 천도불공시간만 2시간 반정도 걸렸던 것 같다), 스승님들도 7일간의 불사를 주재하시고 설법하시기에 지치셨겠지만 각자의 서원으로 정성을 다한 교도들과 저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을 이끄시는 스승님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도들도 스승님들을 아끼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안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즉 신도들의 간지를 몇 분 스승님들이 나누어서 조용히(낮은 목소리로)을 조리고, 교도들은 편안한 상태로 마음속으로 영식과 조상에 대해 서원하는 식의 불사를 제안해 봅니다.

교도들의 서원은 이미 서원자를 통하여 스승님에게 전해졌으므로 서원이

교도들의 손을 떠나는 순간 벌써 회향된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서원자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각자는 서원을 스승님께 일임하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부처님만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어떠한지요. 그러면 스승님은 수많은 서원을 큰 목소리로 향송하지 않으시니 덜 피로하시고 전체 불사를 무리없이 주재하실 수 있고, 교도들도 긴 좌선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불공을 주관해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새해불공에는 저의 불공에 대한 서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충지정보 편집위원)

신행체험 28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김소아(지신주) 보살
<벽룡사 신성회 회장>

▶ 충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30여년 전 전라도 광주에서 살다가 각자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중 서울로 발령을 받아 신림6동에 집을 마련하여 수개월을 살다보니 같은 동네 이웃과 많은 교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앞집 아주머니께서 함께 부처님을 믿어 보자고 제의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절에 따라다니다 보니 그 보살님은 복지와 스승님의 따님인 서정희보살님이셨습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그분과 함께 당시 서대문에 있는 충지종 사원에 열심히 다니며 정진하다가 신림6동에 조그마한 일광서원당을 마련해 주셔서 서정희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몇 명의 신도와 함께 가족처럼 열심히 불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맺은 인연을 계기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어 저뿐만 아니라 저의 두딸, 그리고 손아래 동생 및 자녀들까지 매주 자성일마다 열심히 불공을 드리며 10년의 세월을 보내다 신림1동에 벽룡사라는 훌륭한 전당을 마련해 주셔서 열반하신 현덕정사님과 현재 시법사에서 교화하시는 환승원전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충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몸은 허약체질이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혼자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몸이 쇠약해져 병 때문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을 내집 드나들 듯 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도 여러번 넘기는 등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때부터 부처님을 믿고 불공하는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또 열심히 불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공을 통해 부귀영화를 얻거나, 흔히 말하는 물질적 혜택을 받은 것이 없을 지 몰라도 집안에 있을 액운이나 화를 꿈을 통해 미리 예지해

주시는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큰 걱정거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어두워서 갈망하고 정진을 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업보가 두터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또한 미친한 존재이다 보니 깨달음이 어렵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어지러워 계속 정진하기가 어렵고 또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이것을 내 가족, 친지, 이웃에게 전하여 제도함으로써 함께 부처님의 공덕과 심신의 평화를 얻고자 해도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아 제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인도하기 어려운 가족, 친지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려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의 수행생활이 미천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여 그 믿음을 돈독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수행법은?

저는 지금까지 수행해오면서 순수한 내 마음 그대로 불법에 의지하고 업을 소멸하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현명하게 잘 이끌어 가고자 비로자나 부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며 내 마음을 하심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방법은 수없이 많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며 지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나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을 때나 심지어는 시장을 보는 중에도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면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면 부처님이 바로 곁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새벽이나 깊은 밤에 가족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 생길 때마다 불공을 하는데 이 시간은 조용히 묵상하며 잡념을 쫓아버려 오로지 불공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용맹정진하고자 합니다.

▶ 충지종 수행법의 좋은 점?

충지종 수행법은 하면 할수록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행법이 어려우면 수행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 충지종 수행법은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불교요, 실천불교라고 생각합니다.

▶ 벽룡사 교도들 자랑할 점은?

우리 벽룡사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교도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교도들 모두가 생활전선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동분서주 하는 중에도 자성일을 거르지 않고 잘 지키며 우애가 돈독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요, 또 슬픔이 곧 내 슬픔인 것처럼 합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터단결하여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신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부처님의 공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벽룡사는 스승님을 부처님처럼, 때론 어머니처럼 모시며 교도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기도정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나날이 번창할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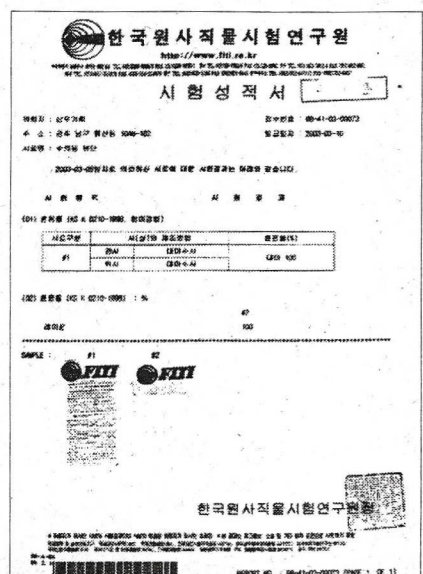
▶ 충지종 종단과 벽룡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제가 충지종 종단이나 우리 벽룡사 교도들에게 감히 뭘 바란다고 말하기는 주제 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종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종단은 교도들이 부처님을 구심점으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룡사 교도들에게는 먼저 회향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저를 성심껏 도와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만 앞설 뿐 교도들을 위해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저를 회장으로 받들고 도와주시는 교도들 덕분에 저는 어디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굳이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도들 모두가 정사님과 전수님을 잘 모시고 모범적인 불자의 생활을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를 가정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움...

효는 만행의 근원..., “진삼베 수의”로 효를 실천하세요



수의(예복)이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극락왕생할 때, 또한 조상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서 원단은 주로 진삼베를 사용했으며,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수의를 준비해 두시면 집안에, 우환과 삼재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누리다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불교충지종에서는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 성적표를 받은 100% 진삼베 원단으로 보증받아 제작한 수의를 교도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삼베수의

삼베(大麻)는 고유의 독특한 향균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예부터 조상님들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삼베수의는 사부대중들이 입었던 수의로써 100% 진삼베(화순포) 220자를 사용하여 엄밀한 작업공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제작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수의내용

男 : 도포, 도포띠, 두루마기, 두루마기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량,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반이, 버선, 대님, 행전, 천금, 지금, 장매, 맷배 (총23종)
女 : 원삼, 원삼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속치마,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량,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반이, 버선, 족두리, 천금, 지금, 장매, 맷배 (총22종)

무료제공

본 수의를 구입하시면 진, 완장, 행전 각 10장씩과 명정, 판보, 습신, 예단 등 부속물 일절 및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입는 상복을 가족수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의보급가격

120만원(3회 분할납부 가능) 결제방법 : 온라인입금

연락처 : 불교충지종 통리원 (02-552-1080~3) * 수의금은 사원의 만다라 봉안불사에 쓰여집니다.



진삼베수의의 내용물

행복의 감로수가 넘쳐나는 소원성취 도량

양상한 가지만 남긴 채 겨울의 매서운 바람에도 이렇듯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모습만을 굳건하게 지킨 채 서있는 나무의 모습처럼 오로지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감로수와 행복을 베풀고 있는 도량!!!

올마니반매출의 진언공덕이 가득한 말발수행도량 서울 벽룡사를 찾아가 본다

사원연혁

벽룡사는 총기7년 관악구 신림2동에 불단을 개설하고 일광서원당으로 개원하였다. 이후 총기17년 관악구 신림본동의 대지 203평과 건물 67평을 매입하여 본존과 불단을 이설하고 벽룡사로 개명하였다.

벽룡사는 초대 정원각스승이 부임하여 교화하였으며, 현덕정사, 환수원전수가 10여 년 동안 벽룡사에서 교화하였다. 현재는 원당정사, 묘심해전수가 중생제도를 위해 교화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행복의 길

텔렌 마이테나의 『웰빙으로 나를 경영하라』는 책을 보면 "끼니 때마다 유기를 먹고, 저녁마다 요가를 하고, 주말마다 온천을 다니는 게 웰빙이 아니다. 웰빙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웰빙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다분히 철학적인 코드다. 웰빙은 말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야 돈 재산이 없어도 월급날 가족과의 단란한 저녁식사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동불통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도 온갖 보약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병원 중환자실에는 일반 병실에만 가도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수술실 앞에는 살아만 주어도 감사하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과 행복의 기준은 각각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행복은 비록 누더기

남들께 공양 올리고, 한 걸음 나아가 모든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복을 짓도록 가르치는 것이 절입니다. 그렇게 복을 지으면 업장이 녹습니다. 복이 많으면 과거생에 지은 업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녹여 내고 무명번뇌에 가린 지혜를 깨끗하게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거나 그것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진리를 기쁘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원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대보살이기를 서원해야 합니다. 그 보덕과 수행이 자라면 부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살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꽃피웁니다. 또한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기에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해

할 때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먼저처럼 일어나는 잡생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순수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만 생각을 치달리며 주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외부로만 휩쓸리는 마음을 거두어 내부로 그 관심을 돌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불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신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섬으로써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믿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무엇이 썩어 흘린 듯이 살아가는 것이고, 낫이 나간 채 살아가는 것이어서 자신의 삶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등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자신이 더욱 가치있



대로 존재의 안념이자 완성이다.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이다.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웰빙이라면 웰빙이라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자세와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진정한 웰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참된 건강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의 경제목표가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가지면 행복하고 10억 원이 없으면 불행한가요? 또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70에서 120 사이에 있어야 건강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도 행복도 숫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도 부족

를 걸치고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부처님 법의 감로수를 마시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의 감로수를 마셔보고 절에 자주 와야 합니다. 세상살이에서 느끼는 모든 절망과 슬픔을 부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을 구하기 위해 인을 지어야 합니다. 복이란 것은 웰빙의 상품을 사듯이 돈 주고 사는 것일 수 없습니다. 복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복이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져 큰 공덕으로 자라고, 커진 공덕은 되돌아와 내 복이 됩니다. 그렇게 복을 짓고 또 짓도록 하는 것이 절입니다.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수행의 길을 가는 스승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며, 무엇을하고 어떤 성격인지 전혀 모른다면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려면 좀 더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불공을 합니다. 불공을

는 존재가 되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절에 와서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45
전화 : 02-889-0211



인 터 뷰

벽룡사 원당 정사, 묘심해 전수



원당 정사



묘심해 전수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고등학교시절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전수와 함께 학교 생활에 다니며 수행생활을 하던 중, 91년 만보사 교도이시던 어머니의 병고 해탈을 위하여 49일 불공을 시작 하게 되면서 총지종 전수님과 만남을 계기로 총지종과의 인연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삼밀의계에 의한 진언영송을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생활수행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환희심을 맛보면서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밀인사의 교도가 되어 본격적으로 진언행자로서 삼밀관행을 실천하면서 법장좌 전수님 그리고 원송 정사님과 인법계 전수님의 자상한 가르침과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아직은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하며 오로지 정진에만 매진해야 할 입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진언수행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참다운 진언수행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복만을 비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나를 바꾸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발심자경문』에 "삼일수심천재보(三日修心天載寶)야 백년 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이라 삼일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달라고 하는 기복만을 비는 수행생활은 허니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바라고 끝도 없고 만족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복은 유무복(有漏福)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에 물든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청정한 나로 바꾸어 나가는 수행은 무무복(無漏福)으로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발현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게 되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진언수행이고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생교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내세울 만한 방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굳센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종조님께서 세우신 총지와 수행방편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지종에 입교하여 진언행자가 되었으면 하는 서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도님들이 서원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즐거움 마음으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진언수행을 함께 있어서 스승으로써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하는데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간에 아집과 집착에 얽매어 살고 있고 나와 너를 살리는 자제가 아닌 서로 죽이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진언수행법인 삼밀관행은 중생의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부처님의 삼밀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중생의 좁은 마음을 바꾸어서 부처님의 넓은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은 잘못 쓰면 바늘 끝보다 좁고 잘못 쓰면 우주보다 넓다고 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보

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내 욕심을 먼저 채우기 전에 내가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연기법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인과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도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으며 의존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 불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교도님들과 함께 영송하는 일 자체가 가장 큰 보람이자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사원환경과 부족한 스승이지만 믿고 수순하며, 교도님들이 열심히 용맹정진하여 고통에서 해탈하고 뜻하는 바에 따라서 서원을 성취하여 환희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도님들과 함께 용맹정진하면서 저희들도 한단계 한단계 성숙해 지는 것 같습니다.

▶ 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총지종은 스승과 사원의 모습에서부터 의욕에 이르기 까지 현교와 다른 점이 많아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믿고 가르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하고 수행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 젊은 정사, 전수로서 총지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총지종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그동안 많은 스승님들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과 총지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구어 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용기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정사, 전수들은 교화를 하면서 선배 스승님들의 창조 당시의 애중심을 한시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종단이 발전하려면 먼저 스승님들과 교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단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단결하는 힘만큼 강한 것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합단결하는 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써 먼저 모범적 행동을 보이고 수행에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종단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벽룡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제창하며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재가 불교 종단입니다. 생활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과 현실생활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불공을 올릴 때의 마음처럼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며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삼밀행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시어 원하는 바에 따라 소원성취하시고 괴로움에서 해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항상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시는 벽룡사 각자님들과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